

유관순학교 운영 비교분석을 통한 발전방안

윤 여 승*·이 윤 서**

국문요약

본 논문에서는 유관순학교를 청소년 역사 프로그램으로 지속해서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는 인성교육이자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기를 수 있는 배움의 장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역사적 사실 전달과 지금의 청소년이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 주인의식 등 역사의식을 교육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초창기는 합숙형 프로그램에서 청소년 요구에 따라 회기형 프로그램 맞춤형으로 다양한 역사탐구 방법을 활용하여 청소년 스스로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의 흥미와 관심을 고려하여 수준에 적합한 경험을 제공하는 효율적인 학습 방법을 지향해 청소년들에게 역사가 재미있는 것, 알고 싶은 것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4차산업과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대면 활동으로 진행해 오면 유관순학교의 콘텐츠를 VR 역사콘텐츠를 개발하여 VR키트제공, 청소년 역사동아리와 함께 유관순을 주제로 “천안아 놀자” 역사 보드게임을 개발하여 비대면 체험 활동을 제공하고 국가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로 연계하여 참여 청소년들에 대해 핵심역량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비관적 사고 > 의사소통 > 협업 > 사회정서 > 창의력 > 진로개발 순으로 나타났다.

시간이 흘러 시대가 변하더라도 청소년의 올바른 역사의식 고취를 위한 역사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 강조는 변치 않을 것이고 지금보다 나은 방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해 본다. 청소년 역사전문가 양성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4차 산업에 맞는 VR, AR 콘텐츠 개발, 유관순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강화, 초등학교 사회 교과연계로 천안만큼은 연계의무 교육의 필요, 유관순 열사에 대한 지역 문화 확대이다.

주제어: 유관순학교, VR역사탐방대, 보드게임, 천안아 놀자,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논문투고일: 2021.11.29. 논문심사일: 2021.12.06. 게재확정일: 2021.12.17.

* 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 관장

** 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 대리

목 차

I. 유관순 학교	II. 유관순 학교의 역사교육 효과성
1. 유관순 학교 목적과 의의	1. 유관순 학교의 만족도 조사
2. 유관순 학교의 변화	2. 또 다른 유관순 학교
3. 유관순 학교 운영현황	III. 결론 및 제언

I. 유관순 학교

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되지만, 전국의 청소년시설에서 여러 역사 프로그램 중 가장 오랜 기간(2014년~2020년, 22회차), 가장 많은 청소년(1,550명)이 다녀간 프로그램이 “유관순 학교”라고 자부하고 있다. 유관순 학교는 전 천안대학교 (현 백석대학교) 유관순 연구소에서 2003년 8월 제1기를 시작으로 2021년 현재까지 19년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뿌리 깊은 청소년 역사 프로그램으로 2014년 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이 재개관하여 백석대학교가 위탁 운영하게 되면서 현재는 백석대학교 유관순연구소와 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운영하고 있다.

1. 유관순 학교 목적과 의의

2013년 5월 한 방송사에서 청소년의 역사 인식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진행한 인터뷰에서 ‘3·1절에 관해 묻자 ‘삼점일절?’이라고 대답하고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질문에는 ‘야스쿠니 켄틀맨’이라고 되묻는 청소년들이 있었다.¹⁾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들에게 역사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역사에 대한 동기부여가 전혀 되지 않기 때문이며,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 교육은 단순한 암기방식으로 단편적인 사례나 역사적 사실만 늘어놓은 형식이다. 또한, 역사나 나라사랑의 교육이 국경일이 있는 시기에 단기적, 제한적으로 진행된다는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유관순 학교는 청소년들이 역사가 단순 암기나 어려운 교과목이라는

1) 「5·18폭동 삼점일절...학생 역사인식 실종」, 『강원도민일보』, 2013년 5월 23일자, 제 4면

오명을 탈피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는 인성교육이자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기를 수 있는 배움의 장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역사적 사실 전달과 지금의 청소년이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 주인의식 등 역사의식을 교육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또한, 현재 교육 방식은 학습자의 활동이 중시되고, 추상화된 지식보다는 일상생활이나 문화와 관련된 내용이 상대적으로 더 강조되며, 다른 문화에 대한 국제 이해 교육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민족 문화에 대한 교수·학습의 필요성을 증대시킨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각종 문화 체험 활동을 통하여 학습하는 것을 더욱 요구받게 될 것이다.²⁾ 유관순 학교는 다양한 역사 탐구 방법을 활용하여 청소년 스스로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대상자의 흥미와 관심을 고려하여 수준에 적합한 경험을 제공하는 효율적인 학습 방법을 지향해 청소년들에게 역사가 재미있는 것, 알고 싶은 것으로 인식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의 역사의식과 가치관은 천성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므로 기존의 문화와 사회 속에서 교육되고, 체득되고 경험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유관순 학교는 근대 격동기의 대표적인 인물이자, 천안시의 대표적인 위인 유관순열사의 생애와 삶을 알고 올바른 민족정신과 나라사랑의 마음을 정립해 독립의 참된 의미를 일깨우고 자주적인 역사의식 함양을 돕는다는데 큰 의의를 갖는다.

2. 유관순 학교의 변화

유관순 학교는 2003년 처음 만들어질 당시 1박 2일 숙박형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다. 천안 관내 재학 중인 초등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에만 진행하였으며 유관순 열사 특강, 백일장, 사생대회, 선배와의 시간, 유관순열사 기념관 답사 및 서대문형무소역사기념관 답사 등의 유관순열사의 생애와 나라사랑정신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학습 방법을 활용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운영되었다. 숙박형 유관순 학교는 2003년부터 2014년까지 12년 동안 연 1회, 총 12번 진행되었다. 그러다 2014년 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과 백석대학교

2) 문화재청, 『문화재 교육의 이론방법 및 실제』, 2000, 71-72쪽

유관순연구소가 유관순 학교를 공동 주관하게 되면서 활동 형태와 내용이 보다 다양해지고 연간 운영 횟수를 확대하는 등 프로그램 운영에 변화를 가지게 된다. 2014년 12월 숙박에 대한 걱정과 부담을 가지고 있던 학부모와,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비숙박형 유관순 학교가 시범 운영 되었다. 하지만 프로그램 기획 시 청소년들에게 전달하고자 선정했던 내용을 단회기 진행으로 다 전할 수 없다는 한계를 느끼고 2015년 14기 유관순 학교 이후는 이틀간 연속으로 운영하나 비숙박으로 진행하는 형태로 다시 변화하게 된다. 또한 유관순열사기념관과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으로 제한 되었던 답사 장소가 경복궁, 안중근의사 기념관, 탑골공원, 광주학생항일운동기념관 등으로 다양해 졌으며 연 1회 이상 중등 고급 운영을 통해 대상의 폭 또한 한층 넓어졌다.

1999년 화성 씨랜드 화재사건과 매해 여름철이면 기승을 부리는 식중독, 검증되지 않은 인력 채용으로 인한 성추행, 2014년 세월호 참사 등으로 인해 청소년 활동은 안전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크게 영향받으며 성장해 왔다. 국가는 청소년들이 유익하고 안전한 프로그램을 전문가를 통해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에 의거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라는 제도를 만들었다. 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에서는 2014년 12월 10일 유관순 학교를 청소년수련 활동 인증제에 제3991호로 등록해 유관순 학교가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유익하며 전문가를 통해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받았다. 인증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활동 내용 및 지도자가 획일화되어 청소년에게 다양한 내용을 전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 최소 연 1회 이상은 인증프로그램으로 진행하되, 이후 활동은 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과 유관순연구소의 협의 하에 다양한 형태와 내용으로 운영하였다.

청소년들의 생활방식 변화로 숙박형보다 당일형으로 2018년부터는 당일형으로 프로그램 변경하고 “2019년 3·1운동 100주년” 되기에 천안시에 사업 제안을 통해 1억 원을 확보하여 유관순학교를 토대로 4차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VR 콘텐츠를 개발하고 수련관 25인승 차량을 개조하여 “유관순과 함께 떠나는 VR역사탐방대” 프로그램 개발하여 청소년들에게 역사를 쉽게 이해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9년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에 본 프로그램이 최우수부스로 선정이 되어 여성가족부 장관상도 받게 되었다. 그리고 2019 천안흥타령춤축제 참여참가를

통해 축제에 참여하는 시민과 청소년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와 체험을 제공하였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발생으로 대면 활동이 어려움 속에서도 VR키트를 제공하고, 청소년 역사동아리와 함께 유관순을 주제로 “천안아 놀자” 역사보드 게임을 개발하여 비대면 체험활동을 운영하고 2021년도에도 지속하는 코로나19로 역사보드게임을 업그레이드하여 AR로 개발하여 4차 산업의 발달을 최대한 활용하여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표 1> 유관순학교의 변화 흐름도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형태	캠프형	캠프형	캠프형	캠프형	당일형	당일형, 찾아가는	당일형, 찾아가는	당일형, 찾아가는
외부 환경	야외 활동 강화	야외 활동 강화	야외 활동 강화	야외 활동 강화	야외 활동 강화	3·1운동 100주년	코로나19 발생	코로나19 지속
대응	국가 청소년 수련 활동 인증제	국가 청소년 수련 활동 인증제	국가 청소년 수련 활동 인증제	국가 청소년 수련 활동 인증제	국가 청소년 수련 활동 인증제	유관순 열사 VR콘텐츠 개발, VR차량 운영	유관순 열사 VR콘텐츠 개발, 역사보드 게임개발	유관순 열사 VR콘텐츠 개발, 역사보드 게임 AR개발

3. 유관순 학교 운영현황

태조산수련관에서는 2014년도 12기 유관순 학교를 시작으로 2021년 10월 현재 된 29기, 당일형 2회까지 총 22회기에 걸쳐 유관순 학교를 운영했다. 11세~16세 청소년 1,550명이 유관순 학교에 다녀갔으며 백석대학교 법인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1일 차에 주된 활동은 유관순 연구소 소장님의 전문 강의, 강의를 바탕으로 한 역사 골든벨, 유관순열사기념관 답사, 유관순열사 생가지 답사로 유관순 열사에 대한 기본 지식을 학습한다. 2일차에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답사와 안중근의사 기념관 또는 경복궁 등을 다니며 근대역사의 전반을 학습, 민족의 아픔을 함께 이해하는 시간을 가진다.

<표 2> 연도별 실적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추진실적	횟수	2회	4회	5회	5회	3회	1회	2회	22회기
	인원	100명	300명	300명	270명	420명	120명	40명	1,550명
집행예산		10,000천원	8,350천원	9,000천원	9,000천원	11,000천원	8,000천원	2,000천원	57,350천원

2014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유관순 학교 운영 횟수와 참가 청소년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공모사업으로 확대 운영하는 “유관순과 함께 떠나는 VR역사탐방대”는 2019년 120회 10,658명 2020년 32회 2,657명 코로나 19속에서도 비대면 교육을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청소년지도자와 역사교육자들만 역사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과 학부모에게도 역사 교육에 대한 욕구와 수요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초반에는 유관순 학교 초창기 모습을 답습해 안정적인 운영과 체제 구축에 힘을 쏟았다면 현재는 청소년들에게 전문적이고 폭넓은 역사 교육 제공을 유관순 학교 운영의 바탕으로 두고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에 힘을 쓰고 있다. 청소년들의 역사 교육에 대한 욕구는 참여 횟수와 참여 인원 증가뿐만 아니라 매회기 진행되는 만족도 설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원하는 역사 교육의 형태나 가고 싶은 문화유산사적지, 역사 현장 등을 서술형 질문을 통해 파악하고 프로그램 기획에 반영하고 있다. 그 결과 천안, 서울 지역에 한정적이었던 답사가 군산, 함평, 광주 등으로 확대되었고 그 내용 역시 ‘유관순 열사의 생애와 나라사랑’이라는 다소 제한적일 수 있는 스토리에서 ‘유관순 열사가 목숨 받쳐 지키고자 했던 내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스토리로 확장되어 유관순열사가 살던 시대, 3·1운동의 의의, 임시정부의 탄생, 끝나지 않는 함성소리-광주학생항일운동 등의 주제로 운영되었다.

<표 3> 기수별 운영 내용

기수	운영일자	대상과 인원	활동내용	비고
12기	2014.07.31(목) ~08.02(토)	11~13세 청소년 55명	유관순 캠프	숙박형 (2박 3일)
13기	2014.12.20(토)	9세 이상 청소년 45명	유관순 열사 전문 강의 서대문형무소, 경복궁 답사	
14기	2015.02.28(토)	14~16세 청소년 30명	유관순 열사 전문 강의 유관순 생가와 기념관 답사	인증 제3991호
15기	2015.05.23(토), 30(토)	9세 이상 청소년 45명	특강과 생가 기념관 답사 서대문형무소, 안중근의사기념관 답사	
16기	2015.08.07(금), 08(토)	9세 이상 청소년 45명	유관순 열사 전문 강의 유관순 생가와 기념관 답사 서대문형무소, 안중근의사기념관 답사	
17기	2015.12.12(토), 13(일)	9세 이상 청소년 45명	유관순 열사 전문 강의 유관순 생가와 기념관 답사 서대문형무소, 안중근의사기념관 답사	
18기	2016.03.05(토)	14~16세 청소년 30명	유관순 열사 전문 강의 유관순 생가와 기념관 답사	인증 제3991호
	2016.07.20(수)	14~16세 청소년 30명	서대문형무소, 안중근의사기념관 답사	
19기	2016.10.29(토)	11~13세 청소년 30명	유관순 열사 전문 강의 유관순 생가와 기념관 답사	
20기	2016.11.12(토), 13(토)	11~13세 청소년 35명	유관순 열사 전문 강의 유관순 생가와 기념관 답사 서대문형무소, 안중근의사기념관 답사	
21기	2016.11.26(토), 27(일)	11~13세 청소년 35명	유관순 열사 전문 강의 유관순 생가와 기념관 답사 서대문형무소, 안중근의사기념관 답사	

22기	2017.02.28(화)	14~16세 청소년 30명	특강, 기미독립선언서 만들기, 아우내봉화제 참여	
23기	2017.07.27(금), 28(토)	14~16세 청소년 30명	유관순 열사 전문 강의 유관순 생가와 기념관 답사 서대문형무소, 안중근의사기념관 답사	
24기	2017.08.25(금), 26(토)	11~13세 청소년 30명	유관순열사 전문강의 한국의 근대사 강의, 군산근대역사박물관과 군산 일대 유적지 답사	
25기	2017.09.16(토), 17(일)	11~13세 청소년 30명	유관순열사 전문 강의 3·1운동의 과정과 의의 강의, 탐골공원과 태화관터, 서대문형무소, 제암리 3·1운동 유적지 답사	
26기	2017.10.21(토), 22(일)	11~13세 청소년 30명	유관순열사 전문 강의 임시정부의 역할과 의의 알기, 이동녕기념관, 함평 임시정부청사, 김철선생기념관 답사	
27기	2018.7.24(화) ~27(금)	11~13세 청소년 40명	역사 교육과 통영일대 사적지 답사	
28기	2018.8.6(월)~ 8(수)	14세~18세 청소년 30명	안보교육과 철원 일대 안보관광지역 답사	
29기	2019.8.8(목) ~10(토)	11세~18세 청소년 30명	서대문형무소, 통일전망대, 도라산동	
당 일 형	2020.4.28(화)	11세~13세 청소년 20명	1910년의 국권 강탈이후 1945 해방되기까지	
	2020.5.6(수)	11세~13세 청소년 20명	3·1 만세운동	
기타	2020.8	11세~18세 청소년	역사교육용 콘텐츠 개발 “천안아~ 놀자” 보드게임개발	



<안중근의사기념관 답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답사>



<안중근기념관에서 단체사진>



<유관순열사에 특강>



<유관순열사기념관 답사>



<유관순기념관에서 단체사진>



<함평임시정부청사 답사>



<군산 동국사답사>



<화성 제암리3·1운동유적지 답사>



<이동녕기념관 답사>



<서울 태화관터 답사>



<군산든대역사박물관 답사>



<3·1절 캠페인>



<이 시대 애국을 외치다>



<땅끝에서 애국을 외치다>



<사전교육>

<서대문 형무소>

<통일전망대>

3.1운동과
유관순 열사

교육용
콘텐츠 개발

콘텐츠 개발(보드게임)

<온라인 강의 영상>

<교육용 콘텐츠 개발>

<콘텐츠 개발(보드게임)>

유관순 학교를 운영하면서 프로그램 구성과 함께 홍보에도 큰 노력을 기울여 보다 많은 청소년이 유관순 학교에 다녀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홍보는 크게 SNS를 통한 참가 청소년 모집과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운영 내용 홍보를 하고 있다. 수련관 홈페이지 알림창 게시 및 수련관 페이스북을 통해 모집안내 이미지를 배포하거나, 수련관 이용 경험에 있는 학부모,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자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회기별 활동의 목적과 내용, 참가 청소년의 소감 인터뷰, 관련 사진이 포함된 보도자료를 2014년~2020년 8년 동안 약 80건 이상 배포했다.



<모집안내 이미지>

<보도자료>

<2019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사진 2> 보도자료

II. 유관순 학교의 역사교육 효과성

1. 유관순 학교의 만족도 조사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유관순 학교가 캠프형, 당일형으로 진행되었으며 초등학교생 1,240명(80%), 중학생 310(20%)으로 1,550명의 청소년이 참여하였으며 남학생 853명(55%), 여학생 697명(45%)의 청소년들이 참여하였다. 매년 유관순 학교 프로그램에 대하여 인지도 및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청소년 참여형 역사 프로그램으로 “유관순 학교”가 대표적인 역사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유관순 학교” 프로그램 참여하였던 청소년들은 매우 만족 75%, 만족 23%, 보통 2%로 만족도에 대하여 높은 만족도를 보여 참여 청소년들이 홍보 효과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 활동 핵심역량(의사소통, 협업, 창의력, 사회정서, 진로개발, 비판적 사고)에서 참여 청소년들에게는 비판적 사고 > 의사소통 > 협업 > 사회정서 > 창의력 > 진로개발 순으로 나타났다.

2. 또 다른 유관순 학교

2019년 3·1운동 100주년 이후 다양한 형태로 “유관순과 함께 떠나는 VR역사탐방대”, “천안아 놀자” 보드게임, “VR역사키트”, “천안아 놀자” AI보드게임 등으로 쉽게 우리지역의 역사인물을 알 수 있었으며 학교 초등학교 사회수업과 연계하여 청소년들에게 역사적 호기심을 자극하여 역사교육의 동기부여 되어 자발적으로 역사 교육 활동을 청소년들이 기획하고 계획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

그 중 청소년역사 동아리가 “천안아 놀자” 보드게임 개발된 사례이다. 청소년들이 지식 탐구하고 검증을 통해 역사 교구를 만들어 배운 것을 나눌 줄 아는 건강한 시민성을 보인다는 것에 역사 교육의 의미와 효과를 찾아볼 수 있다.



<사진 3> 보도자료

III. 결론 및 제언

시간이 흘러 시대가 변하더라도 청소년의 올바른 역사의식 고취를 위한 역사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 강조는 변치 않을 것이다. 앞서 말했다시피 청소년의 정체감 혼란 시기에 올바른 자아를 확립하는 것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도와 국가 성장과 더 나아가 국제사회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역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학교 정규교과를 통해 학습하는 것만으로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 많은 전문가는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했다. 또한, 학교나 자격 검정 시험에서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역사 지식수준 평가 형태만으로는 의식의 문제를 평가하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많이 아는 것이 올바른 역사 인식인지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볼 문제이다.

우리 현장에서는 역사 인식 교육을 위해 학교 교과와 상호 보완적 측면을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 역사적 사실 내용을 교수·학습하는 것이 학교의 역할이라면, 청소년 활동에서의 역사 교육은 역사를 마음으로 느끼고, 지금의 나, 또는 현 사회의 문제에 빚대어 볼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유관순 학교는 유관순 열사의 생애와 나라를 위해 애썼던 마음,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하는 마음을

문자가 아닌 현장으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며, 역사 감수성을 통해 청소년들 스스로가 ‘역사 속 나’를 인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것이다.

유관순 학교가 지금보다 나은 방향으로 성장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진정한 역사 교육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몇 가지 일이 있다.

첫째, 청소년 역사전문가 양성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이다. 역사 교육에서 역사적 사실 전달이 중요하기에 역사전문가이신 유관순 연구소 소장님의 유관순 열사 특강과 천안시 문화해설사분들의 도움을 받아 사적지 답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활동 분야와 내용이 확대됨에 따라 더 다양하고 청소년이 흥미롭게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데 전문강사를 섭외하거나 전문가를 모시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둘째, 4차 산업에 맞는 VR, AR 콘텐츠 개발이다. Z세대 청소년들에게는 텍스트의 교육보다 실감형 VR, AR 형태인 디지털 교과서로 학습의 효과를 높이고 있기에 “유관순 학교”도 다양한 VR, AR 개발을 통해 역사에 쉽게 접근하고 동기부여를 시켜줄 필요성이 있다.

셋째, 유관순 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강화이다. 현재 유관순 학교의 참가자는 재참가 청소년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 지난 회기에 만족감을 얻고 이후 회기에 참여하는 경우이다. 활동에 대한 만족도 및 효과성에 대해서는 인정되었지만 여전히 학교 교과로만 역사를 학습하는 청소년들이 많다는 것이다.

넷째, 초등학교 사회 교과연계로 천안만큼은 연계의무교육 필요하다. 역사와 유관순의 고향 천안 “유관순 학교”를 초등학교 사회 교과연계로 의무교육화한다면 프로그램의 개발과 전문가 양성까지 함께 이루어져 역사 교육의 지속을 가지고 올 것이다. 유관순 열사로 시작되어 천안 지역의 역사 인물에 대하여 활성화하여 교육과 체험의 참여를 유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유관순 열사에 대한 지역 문화 확대이다. 현재 유관순 열사와 3·1운동 당시 순국하셨던 분들을 기리기 위해 천안에서는 ‘아우내 봉화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아우내 봉화제는 행사의 목적과 특성상 저녁 시간에, 목천에서 진행된다는 점에 많은 청소년이 참여하기 어려운 요소를 가지고 있다. 유관순 연구소와 천안문화재단, 청소년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생각을 모아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좋아하는 콘텐츠와 역사가 접목된 지역 문화거리가 만들어진다면 청소년들에게 역사가 더 이상 어려운 것, 접하기 힘든 것이 아닌 놀이와 같이 일상으로 스며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박종선(2021), “유관순열사의 묘(墓)를 찾아서-묘지번호 100036을 찾다”, 「유관순연구」, 제26권 제1호.
- 박종선 · 조민상(2019), “유관순 및 3·1운동 관련 언론보도 분석을 통한 인식 활성화 방안”, 「유관순연구」, 제24호.
- 양승훈 · 이윤서(2017), “유관순 학교 프로그램 청소년 대상 운영 사례” 「유관순연구」, 제22호.
- 이건수(2021), “유관순 열사의 독립운동 정신에 관한 연구”, 「유관순연구」, 제26권 제1호.
- 강원도민일보, 「5·18폭동 삼점일절...학생 역사인식 실종」, 2013년 5월 23일자.

Development plan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operation of Yu Gwansun School

Youn Yeosoong*

Lee Yunseo**

Abstract

In this thesis, historical facts can be conveyed and current youth can do for the country so that Yu Gwansun School can be recognized as a history program for youth, character education that continuously forms a sound value, and a place of learning that can develop an eye to see the world. It is operated with an emphasis on educating historical awareness such as role and ownership. In the early stage, we aim for an efficient learning method that provides opportunities for young people to learn on their own by using various historical research methods tailored to the needs of the youth in the camp-type program, and provides an experience suitable for their level in consideration of the interests and interests of the youth. It is being operated so that young people can perceive history as something interesting and something they want to know.

As non-face-to-face activities are active due to the 4th industry and Corona 19, if face-to-face activities are conducted, VR history contents are developed and VR kits are provided for Yu Gwan-sun School's contents, and "Let's play in Cheonan" history board game with the youth history club on the theme of Yu Gwan-sun. was developed to provide non-face-to-face experiential activities, and by linking with the National Youth Training Activity Certification System, core competencies are also effective for participating youths. Critical thinking > communication > collaboration > social emotion > creativity > career development.

Even if the times change over time,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history education

* Cheonan City Taejosan Youth Training Center Director

** Cheonan City Taejosan Youth Training Center Assistant Manager

for instilling the correct historical awareness among young people will not change. Nurturing youth historians and building community networks, developing VR and AR contents suitable for the 4th industry, strengthening public relations for Yu Gwan-sun school programs, linking elementary school social studies, the need for compulsory education in Cheonan, and expanding the local culture for the martyrs Yu Gwan-sun.

Keyword: Yu Gwansun School, VR History Exploration Team, Board Games, Cheonan-ah Let's Play, Youth Training Activity Certification System

